2027년 교육과정 개선 제안서 · 검토 초안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JJ교육연구원(가상, 교육 컨설팅·연수 기관, 연구원 85명)

현황과 범위

2026년 교육운영 AI 업무 기초 연수 3회차의 원본 1,206행을 검토했다. 중복 6행과 공란 30행을 제외한 유효 응답은 1,170건이다. 참여자 1,140건과 교육담당자 30건을 분리했다. 조사 대상 전체 인원 및 미응답자가 없어 응답률과 기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요청

참여자의 실습 확대 360건(31.6%), 속도·난이도 300건(26.3%), 직무 사례 210건(18.4%), 복습 자료 150건(13.2%), 운영 환경 90건(7.9%)이다. 긍정 유지 150건과 확인 필요 60건도 보존한다. 복합 의견 180건을 포함해 모든 유형 언급 합은 1,320건이다. 개선요청이 포함된 고유 응답은 930건이며 1,110건의 요청 유형 언급과 다르다.

교육담당자 의견

교육담당자 유효 응답 30건은 실습 확대 12건, 직무 사례 10건, 운영 환경 8건이다. 참여자와의 합산 순위를 만들지 않는다. 시범 운영의 관찰 항목을 만드는 참고 의견으로 쓴다.

개선 초안

2027년에는 6시간 총량을 유지하면서 설명 시간을 120분에서 90분으로, 개별 실습을 90분에서 120분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한다. 따라 하기 90분과 질문·정리 60분은 유지한다. 교육운영·학교 교육과정 두 가지 예제를 선택해 연습하고, 복습 안내서와 완성 예시를 함께 제공하는 안이다. 이는 설문에서 확인된 요구에 대한 기획 가설이다.

시범 운영과 판단

우선 소규모 시범 운영을 하고 과제 완성 여부와 진행 속도 체감 문항을 확인한다. 회차별 분포와 다른 조건도 함께 검토한다. 표본 선택·분류 판단의 한계가 있어 인과관계나 만족도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 담당자는 원문·시간·예산·장비·강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승인한다.

미확정 사항

추가 비용, 강사·운영담당 배정, 시범 일정, 과제 완성 목표, 개선 여부 판단 기준은 (확인 필요)다. 예산을 임의로 채우거나 시행 확정으로 쓰지 않는다.